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The Effect of Antecedents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 미 성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전 귀 연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Kim, Mi Seong*

*Associate Prof. : Jeon, Gwee Yeon*

### ◁ 목 차 ▷

- |                      |               |
|----------------------|---------------|
| I. 연구의 중요성 및 문제 제기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antecedents and how much these antecedents have an effect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251 mothers who have child 3 to 6 years old in Daegu and Kyungbook province. The data are analysed through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s sex,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social support affect materna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Second, child's temperament, mother's personality and parenting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social support affect maternal control parenting behavior.

Third, mother's variables, especially parenting self-efficacy, have great effect on materna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than any other variables have.

Corresponding Author: Gwee Yeon Jeo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 Dong, Puk-Ku, Teagu 702-701, Korea Tel: + 82-53-950-6210 Fax: + 82-53-950-6209  
E-mail-gyjeon@knu.ac.kr

Forth, mother's variables, especially personality and efficacy of parenting, have great effect on maternal control parenting behavior than any other variables have.

**주제어(Key Word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어머니 특성(mother's variables), 아동 특성(child's variables), 맥락적 특성(context's variables)

## I. 연구의 중요성 및 문제의 제기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아동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환경의 여러 요소 중 중요한 인적환경인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성격과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여러 발달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양육행동 중 온정이나 애정, 관심과 같은 양육특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박영애, 정옥분, 1996)과 사회적 능력(천희영, 1993), 정서지능(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2000), 안정애착(Bowlby, 1973)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와 방임과 같은 양육특성은 사회 정서성(김광웅, 이인수, 1998)과 공격성(김민정, 도현심, 2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여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것에 비해 어머니가 취하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그리고 맥락적 특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 특성과 관련된 연구로 기질, 성장속도나 형태, 출생순위, 연령, 성별을 변인으로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강은주, 1999; 양정선, 1997; 이숙, 1988; 임양미, 1994; 임희수, 1994; 천희영, 1992; Belsky, Crnic, & Gabie, 1995; Johnson, 2001; Milliones, 1978; Someya, 2000)이 있다. 이 중에서 성별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연구들(양정선, 1997; Fagot, 1978;

Someya, 2000)과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는 없는 연구들(이남기, 박정희, 1995; 임희수, 1994; Johnson, 2001)이 있어 그 결과가 일관성 없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이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으로 연구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원영미, 1990; 임희수, 1994). 기질은 유형(임양미, 1994; 천희영, 1992; Milliones, 1978)으로 혹은 하위요인(정은숙, 1984; 최영희, 1995; Lundberg, Perris, & Adolfsson, 1999)으로 분류되어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연구되었으나, 유형보다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밝힐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행동문제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몇몇 연구들은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지각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Beckman, 1983; Mash & Johnston, 1983).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박효주, 김영희, 2000).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와 이것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어머니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적 특성(애착, 성격 특성) 및 인지적 특성(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과거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이혜승, 2000)되면서 과거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양육행동이 매개가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박성연, 임희수, 2002)가 있다. 이러한 연구로 미루

어볼 때 부모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현재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성격특성은 외향성과 신경증(김수진, 도현심, 2001), 반사회성, 편집증, 경조증(박영애, 최은경, 2001) 그리고 우호성과 자율성(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 등이 있다. 성격과 양육행동에 관한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가 각 연구자마다 달라서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또 일부 연구들은 임상척도를 사용해 일반인들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박영애, 최은경, 2001). 그러므로 일반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성격검사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울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일부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덜 민감하고(Belsky & Pensky, 1999; Bettes, 1988; Donovan & Leavitt, 1989),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다(Field, 1985). 이러한 결과들은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어머니를 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일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우울 정도가 양육행동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Bandura(1977)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부모효능감은 부모됨과 부모역할, 즉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자신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Mash & Johnston, 1989). 부모가 가진 인지적 요소인 효능감은 아동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부모효능감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관시킨 실증적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 부모와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적 특성으로써 어머니의 부부관계(노명희, 이숙, 1991; 박성연, 임희수, 2002; Belsky & Isabella, 1985; Ahlberg

& Sandnabba, 1998), 가족이나 친지 및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신숙재, 1997; 황영주, 1997; Crnic & Greenberg, 1990; Harshima & Amato, 1994), 가정이 속해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Portes, Ducham, & William, 1986; Wilson, 1984; Water & Crandall, 1964)를 측정하여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부부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현대 가족내의 부부관계가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가정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들(노명희, 이숙, 1991; 박성연, 임희수, 2002; 임희수, 1994; Belsky & Isabella, 1985; Ahlberg & Sandnabba, 1998)과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임양미, 1994)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지지를 제공해주는 관계망의 크기, 지지의 종류나 양으로 측정되어왔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신숙재, 1997; 이은혜, 1997; 황영주, 1997; Crnic & Greenberg, 1990). 그러나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가 클수록 항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지지의 종류나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으며(이경숙, 1996), 자녀양육에 대한 시댁 식구의 훈계나 조언은 부모의 역할에 갈등을 증가시켜 자녀 양육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이은혜, 이미리, 1996).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더라도 당사자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 측정보다는 주관적 측면 즉,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변인으로 하여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주로 상-중-하류 계층으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애정적 양

육행동에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류계층일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이숙, 1987; Water & Crandall, 1964). 그러나 가정의 경제생활은 이웃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김년희, 안승철, 1998), 경제적 어려움은 그 자체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준다(Mcloyd, 1990). 따라서 가정 수입의 절대적 양보다 가정 수입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양육행동 차이를 더 잘 설명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양육행동에 관련된 요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동의 성별, 기질, 부모의 결혼만족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특정한 단일 변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거나, 양육행동을 매개로 어떤 요인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 특성과 '어머니' 특성 그리고 '맥락적'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변인 모두를 고려했을 때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 특성(성별, 기질, 행동문제), 어머니 특성(애착, 성격특성, 부모효능감), 맥락적 특성(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만족도, 가정 경제력 만족도)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1-1)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1-2) 아동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 특성(성별, 기질, 행동문제), 어머니 특성(애착, 성격특성, 부모효능감), 맥락적 특성(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만족도, 가정 경제력 만족도)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학자들은 양육행동과 양육태도를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자들이 내린 양육행동과 양육태도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유사한 것이 많고, 양육행동과 양육태도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김재희와 박경란(1998)은 양육행동을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뜻하며 양육태도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성연과 이숙(1990)은 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될 수 있고, 학자에 따라 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양육행동과 양육태도의 정의가 매우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느낌이나 추상적인 태도는 행동에 반영되므로 양육태도보다는 양육행동의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양육행동은 이와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학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연구되었다. Rohner와 Rohner(1981)는 세계 186개 사회의 부모 양육행동을 분석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애정차원과 통제차원이라고 하였고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및 권희경(1999)의 연구에서도 양육행동은 크게 '애정과 통제'라는 두 요인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유아기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애정과 통제의 두 차원을

들고 있다. 양육행동은 자녀를 승인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현하는 특성인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특성인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및 태도로 정의하고 '애정'과 '통제'의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아동 특성

#### (1) 성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성별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들(양정선, 1997; Fagot, 1978; Someya, 2000)이 있는 반면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이남기, 박정희, 1995; 임희수, 1994; Johnson, 2001)이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는 여아에게 의존성을 더 허용하며, 온정적이고 설명적이었다(양정선, 1997; Fagot, 1978). 또 남아에게는 성취기대가 높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었고(Fagot, 1978), 남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Someya, 2000).

이와 달리 생후 36개월 전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임희수, 1994; Johnson, 2001), 성별이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이남기, 박정희, 1995)도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가 보이는 양육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비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 (2) 기질

기질이란 유아에게 나타나는 개인의 다양성으로, 심리생물학적 특질을 외현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며 그 반응양식을 스스로 조절하는 형태에서의 개인차이다(천희영, 1992).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임양미, 1994; 정은숙, 1984; 천희영, 1992; 최영희, 1995; Bates & Lee, 1985; Lundberg, Perris & Adolfsson, 1999; Milliones, 1978)이 있다. 기질은 선천적인 요소로서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므로 환경에 의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기질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특성보다 부모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Buss, 1981; 임양미 1994 재인용).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기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아동의 기질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임희수, 1994).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질을 유형별로 나눈 것과 기질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으로 본 것이 있다.

먼저, 기질 유형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임양미(1994)는 4-7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가 제한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고, 자녀의 기질이 순할수록 어머니가 애정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천희영(1992)의 연구에서는, 3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절형, 조절 결합형, 소극적 조절형으로 기질 유형을 나누고 이 기질 유형과 어머니 양육태도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이라 할 수 있는 조절결합형과 소극적 조절형이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Milliones(1978)의 연구에서 2-24개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행동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반응적이고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이 아동의 순한 기질과 상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순한 기질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까다로운 기질과 제한적-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질의 하위 요인별로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은숙(1984)은 만 3-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아동의 기질은 정서성, 규칙성이 애정적 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활동수준이 제한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최영희(1995)는 3세 이상 4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반응강도와 기분만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기질은 유형(임양미, 1994; 천희영, 1992; Milliones, 1978)이나 하위요인으로 양육행동과의 관계(정은숙, 1984; 최영희, 1995; Lundberg, Perris & Adolfsson, 1999)를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기질은 까다로운 혹은 순한과 같은 포괄적 개념보다는 활동수준, 사교성, 부정적 정서, 산만함 같은 기질의 특정 요인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Bates, Wachs, & VadenBos, 1995)고 한다. 따라서 어떠한 기질 특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형보다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더 명확히 밝힐 것으로 생각된다.

### (3)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회·문화적 수용정도가 낮고, 어떤 행동의 발생빈도와 표출정도가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으로, 아동발달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특성이다(김선희, 김경연, 1998).

최근 연구들은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모 지각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Mash & Johnston, 1983). Mash와 Johnston(1983)은 과활동적 아동을 가진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대상으로 과활동 이외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과활동적 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좀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각

하였고 자녀의 행동문제를 더 많이 지각하는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지각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ohnson(1996)은 문제가 없는 아동의 가족과 과활동성 장애아동 가족에서 아동의 행동문제 여부와 이 문제들의 심각성의 정도를 여러 가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후 질문을 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과활동성 장애아동 집단의 부모들은 여러 상황에서 아동이 문제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지적했고, 좀더 부정적이고, 덜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반응하였다고 밝혔다(Mendes-Baldwin, 2001). 또한 반복되는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다(Beckman, 1983)고 보고하여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과 양육행동이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문제 지각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행동문제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어머니 특성

### (1) 애착

과거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이혜승, 2000)되면서 과거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양육행동이 매개가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박성연, 임희수, 2002)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성연, 임희수, 2000; Luster & Okagaki, 1993). 즉 어머니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가졌던 애착경험은 생식가족 자녀와의 애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후에 그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의 양육행동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노명희, 이숙, 1996).

박성연과 임희수(2002)는 양육행동을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로 정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거부적 태도와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양육 행동에서 애착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eti와 Cohns(1995)는 16-32개월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안정애착과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owan, Cohn, Cowan과 Preason(1996), Crowell and Feldman(1988)의 연구(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재인용)에서도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이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보다 더 애정적이고 지지적이었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애착경험은 과거의 실제 경험보다는 과거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Gerlsma,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밝힘에 있어 어머니가 어느 정도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회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성격특성

성격특성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이며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되어왔다(Phares, 1984).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이선주, 1985), 책임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객관적이고 사색적인 성격특성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애정적으로 보살폈다(이은수, 1985). 전현진(1996)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외향성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적게하며, 신경증적 경

향성이 높으면 애정적 양육행동은 적게 보이고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격특성(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내향성)이 양육행동(거부·제재, 온정·수용, 허용·방임)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분석해 본 결과 어머니의 편집증과 경조증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 관계를, 어머니의 반사회성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박영애, 최은경, 2001).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성격을 측정함에 있어 연구자마다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연구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성격검사는 Eysenck 성격검사(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리적 경향성), 다면적 인성검사 MMPI(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내향성) 또는 우리나라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한 변창진과 진위교(1969)의 성격진단검사(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동조성, 남향성, 충동성, 우월성)이다. 다면적 성격검사척도는 정신장애 유형을 진단하는 것에 유용하며(이인혜, 1999), 중앙적성연구소의 성격진단검사는 350개의 문항으로 문항 수가 너무 많아 피험자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Eysenck의 이론은 외-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의 핵심적 세 차원으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매우 절약적이면서도 효율적(장휘숙, 2001)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리자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고 알려진 정신병적 경향성을 제외하고 내-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성격특성을 측정하여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외향성은 사회성, 흥분성, 활동성의 행동특징과 관련 있으며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으며 활동적이고 낙천적이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과민성, 불안·우울, 근심과 걱정 등의 행동특징과 관련 있는 차원으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예민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다.

우울은 자신과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장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감정상태를 의미한다. 우울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책임을 충족시킬만한 심리적, 물리적 에너지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주장을 할 수 없을 만큼 행동이 위축되어 있으며, 우울로 인해 자녀에게 필요한 관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녀의 일탈행동을 모니터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Webster-Stratton, 1988).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는 영아의 응달이에 늦게 반응하는 등 유아에게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다(Bettes, 1998). Field 등(1985)은 우울한 어머니는 영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Roxburgh 등(2001)도 부모의 우울과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우울과 양육행동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은 대부분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우울과 일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우울 정도가 양육행동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부모됨과 부모역할, 즉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Mash & Johnston, 1989). 이러한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가진 인지적 요인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Modell과 Tyler(1981)의 연구에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와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등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한 태도와 융통성 있고 일관된 행동을 취하였다. Belsky와 Vondra(1981)는 부모효능감이 높으면 부모역할 기술이 좋아진다고 밝혔다.

신숙재(1997)는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부모효능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

타났다고 하였다. 문혁준(1999)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해 조사하여 부모가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권위 있고, 민주적이며, 일관성 있는 아동중심적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인 부모효능감을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시킨 연구는 많으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직접 관련시킨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맥락적 특성

#### (1) 결혼만족도

현대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부부관계의 질은 가정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만족은 부모역할과 관련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의 대부분은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나,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양육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명희, 이숙, 1991; 박성연, 임희수, 2002; 이해영, 1995; Ahlberg & Sandnabba, 1998; Belsky & Isabella, 1985).

박성연과 임희수(2002)는 양육행동을 합리적 지도, 독립심 격려, 거부적 태도, 적극적 참여, 통제로 나누어 결혼만족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보았다. 그 중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양육행동과 결혼만족도는 관계가 있었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합리적 지도, 적극적 참여, 독립심 격려가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가 낮을수록 거부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명희와 이숙(1991)은 결혼만족도의 하위 영역에서 애정적 부부관계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Belsky와 Isabella(1985)는 결혼적응으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혼적응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Ahlberg와 Sandnabba(1998)도



결혼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성에 정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임양미(199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방식 차원과 애정적 양육방식 차원 모두와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제한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애정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한다는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2) 사회적 지지 만족도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과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을 받거나, 대인 관계적 거래를 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임주영, 2001).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고, 부모와 자녀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아동학대나 방임을 예방하며(Harshima & Amato, 1994),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민감하고 따뜻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증진과 아동의 적절한 발달과 연관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Cmic & Greenberg, 1990; 윤혜영 2000 재인용).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수행능력에 대한 지각인 부모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신숙재, 1997).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들 가정의 어머니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이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한다(이은혜, 1997; 황영주, 1997).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사용하며(정현숙, 1997) 자신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만족하는 어머니가 더 지지적이며, 안아주는 등 애정적인 행동을 더 빈번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shima & Amato, 1994).

그러나 이경숙 등(199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망의 크기가 클수록 항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회적 지지의 종류나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자녀양육에 대한 시대 식구의 혼계나 조인은 부모의 역할에 갈등을 증가시켜 아이 양육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이은혜, 이미리, 1996).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더라도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 측정보다는 주관적 측면 즉,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행동간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3) 가정 경제력 만족도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행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Water, & Crandall, 1964).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일수록 아동에게 설명보다는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때 칭찬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소극적인 애정 표현과 낮은 반응성을 보였다(Langner, Herson, Greene, Jameson, & Goff, 1970; 김보형 1999 재인용). 아동에 대한 보상이나 설명적 태도 또는 수용적 태도는 부모들에게 참을성과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공되기 힘든 특성으로 작용하여 아동을 통제하기 쉬운 지시적, 처벌적 양육행동을 사용하게 되며(Portes, Ducham, & William, 1986; Wilson 1984; 김보형 1999 재인용) 하류계층일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이숙, 1987; Water & Crandall, 1964). 그러나 가정의 경제생활은 이웃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김년희, 안승철, 1998)이며, 경제적 어려움은 그 자체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상태가 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준다(Mcloyd, 1990). 따라서 가정 수입의 절대적 양보다 가정 수입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양육행동 차이를 더 잘 설명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에 거주하는 만 3-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 251명을 대상으로 양육행동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질문지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하여 253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251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아를 둔 어머니가 51.4%, 여아를 둔 어머니가 48.6%였고 아동의 연령은 만 5세와 6세가 70.9%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5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4.2% 대졸이 30.7% 전문대졸이 21.1%의 순서로 나타났다으며 고졸 미만은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62.5%)가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29.4%)이 가장 많았다. 가족의 수입은 101-200만원이 30.3%, 201-300만원이 31.1%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양육행동 척도

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현심(1996)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를 승인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현하는 특성이며,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과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으로 부모의 의사에 맞게 하는 특성이며,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8문항, 통제적 양육행동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특성을 높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2와 .78이다.

##### 2) 기질 척도

아동의 기질을 알아보기 만 3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천희영(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질은 새로운 자극이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구분	사례수(%)	변인	구분	사례수(%)
아동 성별	남	129(51.4)	가족 수입	100만원이하	7( 3.1)
	여	122(48.6)		101-200만원	76(30.3)
아동 연령	3세	20( 8.0)		201-300만원	78(31.1)
	4세	53(21.1)		301-400만원	41(16.3)
	5세	79(31.5)		401-500만원	27(10.8)
	6세	99(39.4)		501만원이상	22( 8.8)
모의 연령	25-30세	56(22.3)	모의 학력	고졸	111(44.2)
	31-35세	150(59.8)		전문대졸	53(21.1)
	36-40세	34(13.5)		대졸	77(30.7)
	41-45세	11(4.4)		대학원졸이상	10( 4.0)
모의 직업	전업주부	157(62.5)	부의 직업	전문직	44(17.5)
	전문직	31(12.4)		관리직	16( 6.4)
	사무직	17( 6.8)		사무직	74(29.4)
	서비스직	17( 6.8)		서비스직	13( 5.2)
	판매직	18( 7.2)		판매직	38(15.1)
	생산직	3( 1.2)		생산직	33(13.2)
	무직 및 기타	8( 3.1)		무직 및 기타	33(13.2)

나 변화에 대한 적응정도를 나타내는 적응성에 관한 10문항, 신체적 움직임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활동성에 관한 9문항, 수면과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기능의 규칙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생리적 규칙성 4문항, 자극에 대한 민감한 정도와 반응의 강도를 나타내는 반응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특성을 높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9, .72, .57, .60이다.

### 3) 행동문제 척도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사용한 행동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동문제는 수줍음, 공격성, 과잉행동, 위축행동, 불안행동, 미성숙행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행동문제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문제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1이다.

### 4) 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1992)가 제작한 성인 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이현미 (1997)가 16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렸을 때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애착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5이다.

### 5) 성격특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측정을 위해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작한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이현수(1985)가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향성은 대인관계에서 온정적이고, 활동적이고 흥미를 갖는 경향을 가지는 특성이며, 신

경증적 경향성은 예민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특성이다. 외향성에 관한 15문항과 신경증적 경향성에 관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특성을 높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81, .87이다. 우울은 윤요은(1999)이 사용한「간이 정신 진단검사」단축형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중 우울에 관한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우울은 무가치감, 무기력감, 식욕장애 등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5이다.

### 6) 부모효능감 척도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 최형성과 정옥분(2000)의 척도로 측정한다. 전반적인 양육능력 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문항, 의사소통능력 8문항, 학습지도 능력 5문항, 훈육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부모효능감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89, .79, .82, .82, .77이다.

### 7) 결혼만족도 척도

Schumm과 동료들(1986)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한다. 결혼만족도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4이다.

### 8) 사회적 지지 만족도 척도

신숙재(1997)의 척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본 연구자가 구성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12문항이며,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만족도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4이다.

9) 가정 경제력 만족도 척도

가정의 수입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2문항이며,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94이다.

3. 자료의 수집절차

2002년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대구광역시 및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연구문제1과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후 특성별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이 가장 적은 특성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각 특성의 설명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특성내의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을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VI. 연구결과 및 논의

1.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Perason의 적률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66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 - Watson 계수<sup>1)</sup>를 산출한 결과, 1.86에서 1.98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Dillion & Goldstein, 1984)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

연구결과에 앞서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1) D-W: 측정치들 간의 독립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한 방법으로 잔차에 대한 검증을 이용한다. 데이터 간의 자기상관(auto correlation)이 있으면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통계량으로 Durbin-Watson 통계량을 사용한다. D-W값이 2에 가까우면 측정치들에 독립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측정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4).

<표 2> 변수의 일반적 경향

사례수=251

변 인		평균(표준편차)	점수범위	변 인		평균(표준편차)	점수범위	
양육행동	애정적	3.00( .39)	1-4	성 격	애착	4.38( .80)	1-7	
	통제적	2.60( .34)	1-4		외향	8.50(3.62)	0-15	
아동특성	기 질	적응성	2.92( .45)	1-5	신경증	7.71(5.36)	0-22	
		활동성	2.81( .40)	1-5	우울	1.78( .67)	0-4	
		규칙성	3.08( .47)	1-5	모 의 특 성	부 전반적인양육능력	3.38( .52)	1-5
		반응성	3.16( .38)	1-5		모 건강하게양육능력	3.86( .49)	1-5
	행동문제	1.90( .29)	1-4	효 의사소통능력		3.84( .46)	1-5	
결혼만족도	5.29(1.20)	1-7	능 학습지도능력	3.63( .58)	1-5			
맥락특성	사회적지지만족도	3.69( .72)	1-5	감 훈육능력	3.85( .52)	1-5		
	가정경제력만족도	4.69(1.31)	1-7					

1)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애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각 특성별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표 4>, <표 5>과 같다.

아동의 특성 중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반응성, 행동문제이다. 남아를 둔 어머니가 여아를 둔 어머니 보다 좀더 애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아동의 기질 중 반응성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이 반응적일수록 애정적 행동을 나타냈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과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이 낮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특성은 애정적 양육행동을 1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양육행동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임희수, 1994; 이남기, 박정희, 1995)와 남아의 경우 통제나 거부적인 특성을 높게 나타낸다고 한 연구(양정선, 1997; Someya, 2000)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희수(1994)는 21-40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이남기와 박정희(1995), 양정선(1997), Someya(2000)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로서 어머니 스스로 양육태도를 보고한 본 연구와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는 이성의 자녀와 동성의 자녀를 다른 방법으로 대한다는 연구(Fagot, 1978)와 부모는 이성의 자녀를 좀더 관대하게 다룬다는 연구(Rothbart & Maccoby, 1966)와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남아에게 좀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기질 중 반응성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최영희(1995)가 유아의 기질 중 반응강도가 애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아동의 반응성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나게 한 것으로

<표 3>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특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D · W=1.95)		애정적 양육행동	
		B	β
성별		.11	.14*
기질	적응성	.04	.05
	활동성	-.08	-.09
	규칙성	.06	.07
	반응성	.32	.31***
행동문제		-.24	-.18**
F		8.12***	
R <sup>2</sup>		.17	

\*p<.05 \*\*p<.01 \*\*\*p<.001

<표 4>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특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D · W=1.91)		애정적 양육행동	
		B	β
애착		.04	.09
성격 특성	외향성	.00	.02
	신경증	.01	.07
	우울감	-.05	-.08
부모 효능 감	전반적인양육능력	.23	.31***
	건강하게양육능력	.06	.07
	의사소통능력	.30	.35***
	학습지도능력	-.00	-.01
	훈육능력	-.03	-.05
F		20.79***	
R <sup>2</sup>		.44	

\*p<.05 \*\*p<.01 \*\*\*p<.001

<표 5>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특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D · W=1.94)		애정적 양육행동	
		B	β
결혼만족도		.06	.20**
사회적지지만족도		.11	.20**
가정경제력만족도		.01	.03
F		10.41***	
R <sup>2</sup>		.11	

\*p<.05 \*\*p<.01 \*\*\*p<.001

보인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을 낮게 지각한다는 Mash와 Johnston(1983)의 연구와 유사하게 행동문제 지각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어 다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어머니의 특성 중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효능감이었다. 그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애착과 성격특성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특성이 애정적 양육행동을 44%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차연과 장연집(2000)은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우호성, 사회성, 외향성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격특성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애정적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었다. 그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최형성, 정옥분, 1998)으로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으로 아동을 이해하고 수용적일수록 또한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특성 중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특성은 애

정적 양육행동을 11% 설명해주었다.

결혼만족도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으며(강차연, 장연집, 2000; 노명희, 이숙, 1991), Ahlberg와 Sandnabba(1998)는 결혼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아동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민감하고 따뜻한 양육행동과 연관되는 변인(Crnic & Greenberg, 1990)으로 특히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하고, 지지적이며, 안아주는 등 애정적인 훈육행동을 더 빈번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nnors 1991; Hashima & Amato, 1994). 이는 사회적 지지에 만족할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이 동일하다.

## 2)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각 특성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다.

아동 특성 중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활동성과 반응성, 그리고 행동문제이다.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반응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 전체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12%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undberg와 그의 동료들(1999)은 아동의 기질 중 새로움 추구성(novelty seeking)이 어머니의 거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움 추구는 활동성과 관련 있는 특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동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게 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동문제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

<표 6>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특성의 종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D·W=1.86)		통제적 양육행동	
		B	$\beta$
성별		-.03	-.05
기질	적응성	-.01	.01
	활동성	.20	.23***
	규칙성	.03	.04
	반응성	-.12	-.14*
행동문제		.26	.23***
F		5.33***	
R <sup>2</sup>		.12	

\*p<.05 \*\*p<.01 \*\*\*p<.001

<표 7>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특성의 종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D·W=1.98)		애정적 양육행동	
		B	$\beta$
애착		.03	.06
성격 특성	외향성	-.01	-.14*
	신경증	.02	.33***
	우울감	.01	.02
부모 효능 감	전반적 양육능력	.02	.03
	건강하게 양육능력	.16	.23**
	의사소통능력	-.30	-.40***
	학습지도능력	.02	.03
	훈육능력	.01	-.02
F		10.31***	
R <sup>2</sup>		.29	

\*p<.05 \*\*p<.01 \*\*\*p<.001

<표 8>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특성의 종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D·W=1.93)		애정적 양육행동	
		B	$\beta$
결혼만족도		-.02	-.06
사회적지지만족도		-.08	-.17*
가정경제력만족도		-.02	-.09
F		5.0***	
R <sup>2</sup>		.06	

\*p<.05 \*\*p<.01 \*\*\*p<.001

부모가 부모자녀 상호작용시 부모효능감과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Beckman, 1983; Mash & Johnston, 1983)로 보아 결국 아동이 문제행동이 많다고 느낄수록 부모는 아동을 통제하려는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활동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각될 수 있는 특성으로 보이며 아동의 활동이 많고 아동의 행동문제가 많이 지각될수록 어머니는 아동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통제적 행동을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특성 중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부모효능감이었다.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이 낮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냈다. 부모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양육 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특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을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내향적일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외향성이 높을수록 권위주위적 양육행동은 적게 하며,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전현진(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박영애와 최은경(2001)의 연구에서 편집증과 경조증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높았다. 위의 연구에서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정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적게 나타낼수록 아동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특성 적게 나타내며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울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우울과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 Roxburgh 등(200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아동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통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맥락적 특성 중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특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을 6%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어머니 혼자 아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아동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 경제적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압력으로 부모가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훈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Conger et al., 1984)는 것과 일치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므로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2.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중다회귀분석으로 설명력이 가장 낮은 특성부터 설명력이 높은 순서로 변인군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먼저 투입하여 그것의 설명력을 통제한 후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특성을 투입함으로써 각 특성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특성내의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을 밝힐 수 있다.

1)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설명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난 맥락적 특성을 1단계로 투입하고, 아동 특성을 2단계로, 어머니 특성을 3단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맥락적 특성만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 $\beta = .20$ )와 사회적 지지 만족도( $\beta = .20$ )가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2%였다.

2단계로 아동 특성을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만족도( $\beta = .17$ )가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아 있었으나 사회적 지지 만족도( $\beta = .11$ )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 특성 중 반응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특성을 첨가함으로써 증가된 설명력은 9%였다.

3단계로 어머니 특성을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하였다. 상대적 설명력이 적은 아동, 맥락적 특성에서 유의미했던 영향 요인들은 사라지고 부모효능감중에서 전반적인 양육능력( $\beta = .31$ )과 의사소통능력( $\beta = .34$ )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을 투입함으로써 추가된 설명력은 1, 2단계의 총설명력 21% 보다 많은 25%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적 양육행동에 맥락적 특성, 아동 특성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특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모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중에서 특히 부모효능감(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기질 중 반응성은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어머니 특성이 첨가되면서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는 부모효능감 중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있는 것으로 아동이 반응성이 낮더라도 부모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면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반응성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바



<표 9>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D · W = 193)		애정적 양육행동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맥락 특성	결혼만족도		.07	.20**	.05	.17*	.02	.05
	사회적지지만족도		.11	.20**	.06	.11	.00	.00
	가정경제력만족도		.01	.03	.01	.02	-.02	-.06
아동 특성	성별				.09	.11	.04	.06
	기질	적응성			.06	.08	.03	.03
		활동성			-.08	-.09	-.03	-.03
		규칙성			.04	.05	.06	.08
반응성				.28	.27**	.09	.08	
행동문제				-.13	-.10	.07	.06	
모의 특성	애착						.03	.06
	성격 특성	외향성					.00	.01
		신경증					.00	.06
		우울감					-.04	-.07
	부모 효능감	전반적인양육능력					.23	.31***
건강하게양육능력						.06	.07	
의사소통능력						.29	.34***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01	-.01	
F			10.80***		7.22***		10.84***	
R <sup>2</sup>			.12		.21		.46	
R <sup>2</sup> 증가량			.12		.09		.25	

\*p<.05 \*\*p<.01 \*\*\*p<.001

당으로 설명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맥락적 특성을 1단계로 투입하고, 아동 특성을 2단계로, 어머니 특성을 3단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에서 맥락적 특성만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 만족도만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아동 특성을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만족도( $\beta = .17$ )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 $\beta = .23$ )과 행동문제( $\beta = .19$ )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 특성을 추가함으로써 통제적 양육행동을 10% 추가로 설명해주었다.

3단계로 어머니 특성을 첨가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아동 특성 중 활동성( $\beta = .19$ )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남아 있었으나 행동문제의 유의한 영향력( $\beta = .13$ )이 사라졌다. 어머니 특성 중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외향성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통제적 행동을 적게 나타냈으며 신경증적 경향성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냈다.

어머니 특성은 양육행동을 17%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을 투입함으로써 추가된 설명력이 2단계 보다 많은 것은 맥락적 특성, 아동 특성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특성이 더 높은 영향

〈표 10〉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D·W= 1.98)		통제적 양육행동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맥락 특성	결혼만족도		-.02	-.06	.01	.02	.01	.05
	사회적지지만족도		-.08	-.17*	-.07	-.14	-.01	-.01
	가정경제력만족도		-.02	-.09	-.03	-.10	-.01	-.03
아동 특성	성별				-.02	-.03	.00	.01
	기질	적응성			.02	.03	.02	.03
		활동성			.19	.23***	.16	.19**
		규칙성			.05	.07	.01	.02
		반응성			-.08	-.09	-.04	-.04
행동문제				.23	.19**	.15	.13	
모의 특성	애착						.04	.09
	성격 특성	외향성					-.02	-.17**
		신경증					.02	.31***
		우울감					-.01	-.01
	부모 효능감	전반적인양육능력					.03	.05
건강하게양육능력						.12	.18*	
의사소통능력						-.28	-.37***	
학습지도능력 관육능력						.05	.08	
F			5.00**		4.58***		6.20***	
R <sup>2</sup>			.06		.16		.33	
R <sup>2</sup> 증가량			.06		.10		.17	

\*p&lt;.05 \*\*p&lt;.01 \*\*\*p&lt;.001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성격이 추가됨으로써 아동의 행동문제를 지각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아동의 행동문제는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윤진란, 1994)로 보아 아동의 행동문제 지각은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대구 및 경북에

거주하는 만 3-6세 유아를 둔 어머니였으며, 총 251명이었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그리고 맥락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계수, Pearson의 상관계수, 다중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동 특성으로 아동의 성별이 남아일 때, 기질 중 반응성이 높을 때, 아동의 행동문제의 지각이 낮을 때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냈다. 어머니의 특성으로 부모효능감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맥락적 특성

으로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남아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 결과는 자신과 성이 다른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라는 일부 연구자들의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 연구를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동의 기질 중 반응성은 어머니의 애정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가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높고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은 자녀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으로 이는 자녀에 대한 애정적인 표현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맥락적 특성 중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모-자간의 관계에 다른 가족 관계의 질이나 사회적 체계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동 특성으로 기질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반응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행동 문제 지각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으로 외향성이 낮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맥락적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어머니의 우려를 증가시켜,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반응성이 낮을 때 어머니는 아동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경우 민감하지 못한 아동의 반응을 받고자 통제적 행동을 더 높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외향성이 낮은 것은 사회성이나 활동성 등의 행동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 특성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일반적인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과도한 활동으로 지

각하여 통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예민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 아동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특성 뿐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 및 맥락적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 동일하지 않으며 어머니 특성 변인으로 애정적 양육행동에서는 부모효능감이, 통제적 양육행동에서는 부모효능감과 성격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특성은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애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두 가지 양육행동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특성이었으며 다음으로 아동 특성, 맥락적 특성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은 그 자체만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어머니가 아동 특성이나 맥락적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특성 중 부모효능감이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가질 것이므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 만족도 또한 두 가지 양육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어머니의 양육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지의 주 원천이 되는 가족이외의 사회적 지지망 체계가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 변인은 어머니의 특성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 의사소통능력이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교육이 부모교육의 실제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개입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행동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인 것이며,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배우자나 조부모의 지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성별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영향력이 있었던 변인들이 최종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했을 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이후 단계에서 투입되는 특성 내의 어떤 변인들이 매개 변인이나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강차연, 장연집(2000).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7.
- 김보형(1999). 경제불황 상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인성특성 및 우울감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수진, 도현심(2001). 부-모간 양육행동의 관련 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재희, 박경란(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5, 1353-1377.
- 노명희, 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박성연,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9(2), 61-94.
- 박성연, 임희수(2002).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영애,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연구 -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와 상호작용 효과. 아동학회지, 17(1), 189-202.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요은(1998).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기, 박정희(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4), 265-278.
- 이숙(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이미리(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이현수(1985). 성격검사차원검사. 중앙적성출판사.
- 이혜승(2000). 부모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양미(1994). 어머니 양육방식의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2001). 애착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105-119.
- 전현진(1996).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정옥분(200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한국가족학연구회(1994). 가족학 자료분석 방법. 하우.
- 황영주(1997). 어머니 취업유무와 사회적지지가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hlberg, C., & Sandnabba, K.(1998). Parental nurturance and identification with own father and mother: The reproduction of nurturant parenting.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7, 267-274.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tes, J. E., & Lee, C. L.(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3, 446-461.
- Beckman, A. J.(1983). Influence of selected child characteristic on stress in families of handicapped infant.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8(2), 150-156.
- Belsky, J., & Isabella, R. A.(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ettes(199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ness: Temporal and international feature.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C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Fagot, B. I.(1978). The Influence of sex of child on parental reaction to Toddler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59-465.
- Gelsma(2000). Recollection of Parental Care and Quality of Intimate Relationship: The Role evaluating Past Attachment Experiences. Children's Adjustment.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7, 289-295.
- Harshima, P. Y., & Amato, P. R.(1994).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394-403.
- Jenning, K. D., Stagg, V., & Conners, R. E.(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966-978.
- Johnson, V. K.(2001). Marital interaction, family organization and differences in parenting behavior: Explaining variations across family interaction contexts. *Family Process*, 40(3), 333-342.
- Lundberg, M., Perris, C., & Adolfsen, R.(1999). Family environment and personality: Perceived parenting and role of personality. *Clinical*

-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267-274.
- Mash, E. J., & Johnston, C.,(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Mendes-Baldwin, M.(2001). Changes in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and attitudes in low-income head start parents as a result of participation in a parent education workshop. Fordham university PhD.
- Millioness, J.(1978).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49, 1255-1257.
- Rohner, R. P. & Rohner, E. C.(1981).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 Roxburgh, S., Stephens. R. C., Toltzis. P., & Adkins, I.(2001). The value childrens, parenting strains, and depression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others. *Sociological forum*, 16(1), 55-72.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ymonds, P. M.(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ureau of Publications, Columbia Univ.
- Someya, T., Uehara. T., Kadowaki, M., Tang, S., & Takahashi, S.(2000). Effect of gender difference and birth order on perceived parenting style, measured by th EMBU scale, in Japanese.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53, 77-81.
- Water, E., & Crandall, V.(1964). Social Clas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from 1940 to 196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003년 5월 29일 접수, 2003년 11월 14일 채택)